

# 결핵환자 가정방문을 다녀오면서

글 | 송준희(충남 금산군보건소 결핵실 간호사)

을 2월에 보건소 소내 발령으로 결핵실(만성병관리실)로 발령을 받고서 약간 걱정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에이즈, 한센, 성병, 결핵과 같은 업무는 주어지면 감당하긴 해도 기피 업무인 것이 사실이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게 발령을 받아 어느덧 5월도 지나고 6월, 오늘도 수약하다가 중단하거나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투약하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우선 내가 감염되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도 보호한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다. 신핵이 오면 음료수나 달콤한 초콜릿, 호박 젤리 같은 것을 주어서 나름대로 침이 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고 내심 안심했었고, 그들에게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결핵이란 어떤 병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업무에 있어 내가 가진 장점도 알게 되었다. 다음 투약일이 오기 전에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틈틈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환자와의 대인관계를 집중 관리하다 보니 결핵을 중심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 사항을 알게 되니 필요에 따라 지역내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결핵담당자와 환자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친분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환자쪽에서 전화를 먼저 해오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가족들의 협조로 연결되어 검사와 투약에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알콜 의존증으로 본인의 의지로는 복약이 어려운 환자가 있었다. 결핵은 규칙적인 투약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환자가 식전 식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일일이 확인하고 도와준 결과 요즘은 조금씩 혼자서 약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

또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치매증상이 약간 있으신 환자분의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약을 드시게 하였는데, 지금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중단없이 약을 드시게 되었다.

보호자가 없는 70이 넘는 연세에 혼자 밥을 해 드셔야 하는 처지가 안타까워 간단히 반찬을 마

련해드리고 저녁 식사를 챙겨 자연스럽게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안,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 드린 것 같은 뿌듯함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단순히 보건소 직원과 환자 관계가 아니라, 외로운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그분들의 인생을 들여다 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결핵 치료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왔다.

평소 호흡기가 약해 늘 감기를 달고 살던 나였다. 가정방문을 마치고 산허리를 넘어서 돌아오는 길, 결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3개월 전의 나 대신 이제는 환자관리에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 거창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인적인 간호를 실천하고 한 가정의 복지를 돕는 일이 되어, 언젠가는 결핵없는 금산이 되길, 아니 결핵 없는 세상이 오길 소망해 본다. 내일도 그분들의 반찬을 걱정해 주고 틈이 나는대로 가족들과도 친분을 나누어 결핵균보다 더 무서운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한다.

마치 결핵퇴치를 위해 사명을 부여받기라도 한 양, 환자들의 애환과 사연에 열정을 퍼붓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우리 보건소 관할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나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언젠가는 이런 노력이 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화이팅'을 외쳐 본다. 卍

